

환상적 낭만 선사하는 해상W쇼, 목포의 밤을 수놓는다

4월 29일 첫 공연...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완성도 높은 신규 작품으로 젊은 관광객 유입 효과

목포의 대표 야간관광 콘텐츠인 2023 목포 해상W쇼가 한층 업그레이드되어 찾아온다. 목포시는 오는 29일 목포해상W쇼 첫 공연을 펼친다고 밝혔다.

평화광장 해상무대에서 펼쳐지는 해상W쇼는 이날 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밤 8시부터 9시까지 정기 공연한다.

또한, 여름휴가철 특별공연(8.5),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기념(10.14), 제43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념(11.4) 특별공연도 3회 추가 편성해 다채로운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W가 분수모양을 연상시키는 점에서 착안된 W쇼는 물(Water)에서 펼쳐지는 세계적인(World), 멋진(Wonderful)공연으로 감동(Wow)을 선사하는 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런 W쇼는 해상무대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뮤지컬 공연과 불꽃이 결합된 국내 유일 해상 오브제 불꽃쇼로, 지난해 많은 관광

객에게 호평을 받으며, 독보적인 대한민국의 야간 문화관광 콘텐츠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시는 그동안 소음 민원을 다소 줄이기 위해 불꽃량을 조절하고 횡수 주기 연장 등의 방안을 검토했다.

또한 시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로 공연을 새롭게 선보이면서 주민과 상생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제 104회 전국체전 및 제 43회 전국장애인체전 행사와 연계해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유도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오락성과 대중성을 높인 공연을 펼쳐 환상적인 낭만을 선사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는 추추는 바다분수 기능을 개선하고 있어 바다분수는 가동하지 않는다.

기상악화 시에는 공연 진행이 어려워 방문 전 홈페이지(<http://mokpowshow.co.kr>)를 통해 공연일정을 확인하고 방문하면 된다.

시는 또한, 공연당일 교통 체증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길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해상W쇼는 완성도를 높인 신규 작품을 제작해 젊은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곡과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면서 "시민과 관광객 모두 목포해상W쇼를 통해 행복한 추억을 가져가길 염원한다"고 말했다.

목포=기동취재본부



신안군, 최첨단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착공식

신안군은 4월 21일 지도읍 자동리에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착공식을 개최하고, 국내 최초 새우 종자의 상업적 생산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착공식에는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서삼석 국회의원, 박우량 신안군수 등 내·외빈 등 지역주민 700여 명이 참석하여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의 착공식을 축하해주었다.

신안군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400억원으로 연면적 20,000평으로 실증연구 단지인 테스트베드 단지와 배후시설 단지

로 새우양식장의 바이러스 등 고질적인 질병문제와 고소득 양식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2020년 1월에 선정되었다.

또한, 11,000평 규모의 테스트베드는 전국 최초 ICT 기술을 접목한 해수 순환여과 양식시스템으로 새우와 개체굴 종자생산동, 데이터베이스 관리동 등 본동 3동과 부속동 9동이 건립되며, 9,000평 규모의 배후시설 단지는 양식과 가공유통 수출단지, R&D 연구개발, 인적자원 육성단지로써 직접화한 대규모 양식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신안=이덕주기자

무안군, 법제 업무 능력 향상 위한 실무교육 실시

무안군은 지난 21일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직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제처 찾아가는 순회 교육에 맞춰 2023년 맞춤형 법제·송무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신규공무원들과 업무별 자치법규 정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자치법규 입안

실무 교육과 행정소송 실무 교육을 통해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현장 실무경험이 많은 법제처 소속 윤길준 법제관의 행정소송 실무와 조정필 법제관의 법령체계와 자치법규 입법 절차 순으로 진행됐다.

무안=이기성기자



함평군, 친환경농업관 오색빛깔 호박 '주렁주렁'

100여 종 농작물·열대 과일나무 30여 종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가 개최되는 함평엑스포공원 친환경농업관에 오색빛깔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다.

20일 함평엑스포공원 친환경농업관을 찾은 관광객들이 호박이 주렁주렁 매달린 터널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있다.

친환경농업관에는 호박터널, 여주, 수박 등

100여 종의 농작물과 도시형 텃밭, 빵나무, 소시지나무, 구아바 등 특색있는 열대 과일나무 30여 종이 전시돼 있다.

제25회 함평나비대축제는 '봄이 오는 소리'라는 주제로 오는 4월 28일부터 5월 7일까지 함평엑스포공원에서 다채롭고 풍성한 체험, 전시, 문화예술 행사로 개최된다.

함평=김광춘기자

영광군, 공중위생업소(미용업)영업주 교육 실시



영광군은 지난 20일 관내 미용업 영업자 120명 대상으로 "2023년 공중위생(미용업)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기존 미용업 영업주가 매년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인 위생교육으로, 대한미용사회 전남서부지회 및 영광군지부(지부장 한미선)가 주관하여 공중위생관리 법규교육, 소양교육, 선진기술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

행되었다.

영광군은 영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위생 관리기준 및 행정처분에 대해 교육하고, 2024년 전남체전 및 대규모 행사 등을 대비해 친절교육도 병행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실시되는 이·미용업 공중위생 서비스평가에 대해 안내하고, 영업소 점검 시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강종만 영광군수는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소상공인분들께 지난해 지원한 재난지원금과 금년에 지원하고 있는 활력지원금이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미용업은 위생과 청결이 매우 중요한 핵심가치로 군민들이 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영광=서희권기자

영암군 "반려견 있으면 동물등록비 지원해요"

영암군은 반려견 보유 가구 증가에 따른 유실 유기 동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반려견 동물등록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군의 이번 조치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2014년부터 반려동물 등록이 의무화됨에 따른 견주의 부담을 경감하고 동물 등록율을 제고하고자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등록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군은 등록비 지원을 통해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1인당 최대 5마리까지로 동물판매업 등의 업체 소유 반려견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 65세 이상 고령자, 독거노인 등의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영암=조대호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